

# 한우값 하락에 한·육우 1년새 2.9% 감소

### 통계청 '2023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발표... 오리·육계·산란계↑ 전분기 대비 1.4% 늘어

지난해 4분기 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육우 마릿수가 전년 대비 10만마리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62만 마리로 전년보다 10만6000마리(-2.9%) 감소했다.

2세 이상 마릿수는 늘어난 반면 한우 가격이 떨어지면서 번식의향이 감소하고, 암소 도축이 증가해 1세 미만 마릿수가 줄었다.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분기에

비해서도 13만2000마리(-3.5%) 감소했다.

젖소 사육마릿수는 38만7000마리로 전년 대비 3000마리(-0.8%) 감소했고, 전분기 대비 400마리(0.1%) 증가했다.

경산우(해산 경협이 있는 소) 도축 마릿수가 줄어들면서 2세 이상 마릿수는 늘었는데, 송아지 생산이 감소해 1세 미만 마릿수가 줄어들었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08만9000마리로 전년 대비 3만 5000마리(-0.3%), 전분기 대비 30만9000마리(-2.7%) 각각 감소했다.

모든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2개월 미만 마릿수는 늘었는데, 비육돈(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 도축 마릿수가 증가해 4~6개월 미만 마릿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계는 7720만2000마리로 전년 대비 301만4000마리(4.1%) 증가했다. 3개월 미만 마릿수는 줄었는데 계란 가격이 상승하면서 노계도태 물량이 줄어 6개월 이상 마릿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전분기 대비로도 107만6000마리(1.4%) 늘었다.

육용계는 9411만5000마리로 전년 대

비 540만2000마리(6.1%) 증가했다. 토종닭 마릿수는 감소한 반면 육용종계 상계의 마릿수가 늘었다.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종란을 수입하면서 육계 마릿수가 증가했다.

오리는 전년보다 54만4000마리(9.1%) 증가한 653만8000마리로, 산란종오리 마릿수가 늘어 육용오리 마릿수가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는 12월 초에 발생해 예년보다 좀 늦게 시작됐다. 12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4분기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시스



지난 18일,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이 하림 본사에 방문해 정호석 대표이사의 리더십 특강 후 출정식을 가졌다.

## 하림, HCR투어 산업관광 명소

### 방문객 1년 만에 132% 증가... 연간 방문객 2만여명 기록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의 식품산업투어인 'HCR(Harim Chicken Road)투어'가 연간 방문객 2만여 명을 기록하며 산업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했다.

HCR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2년에는 8,600여 명이, 2023년에는 2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1년 만에 방문객이 132% 증가했다. 이달만 벌써 2,100여 명이 투어를 예약한 상태, 올해는 3만 명, 내년은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기 요인으로는 '입소문'을 꼽았다. 방문객들의 생생한 체험 후기가 SNS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각 지

역 학교, 기관·단체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18일에는 하나은행 호남지역 영업점장, RM 등 약 50여 명의 정호석 대표이사의 리더십 특강 후 출정식을 가졌다.

이어 양동원 부행장을 비롯한 우수 광주전북지역대표, 호남지역 영업점장, RM 등 약 50여 명의 하나은행 임직원들은 HCR투어를 통해 도계 과정을 눈으로 확인했다.

투어를 마친 하나은행 양동원 부행장은 "공정 과정을 직접 보면서 하림의 시간감을 느낄 수 있었고, 식품에 대한 철학과 열정에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전북농협,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재고·수급현황 점검

### 내달 8일까지 10개 품목 수급상황·가격동향 모니터링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최근 설 성수기간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 원활한 공급안정을 위해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 신지유통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과일 재고현황 및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설 성수기간 중 농축산물 수요증가에 대비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약 3주간 설 성수품 무·배추 등 10개 품목에 대한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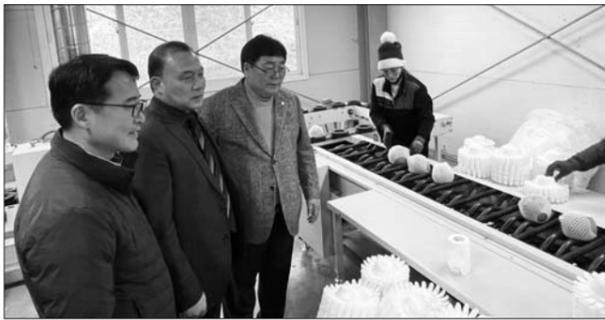
또한, 지난해 기상악화에 따른 과일 생산 부진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사

과·배추품목에 대해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만감류를 혼합한 과일 실속선물세트 10만개를 확대 공급한다.

제수용 사과·배에 대해서도 가격할인을 지원해 소비자들의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농·축산물 수요증상에 대비해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농산물을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은 설명절을 맞아 최근 설 성수기간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 원활한 공급안정을 위해 북전주농협 신지유통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과일 재고현황 등을 점검했다.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효식품 육성·설명절 장바구니 물가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18일 정읍시 소재 천연 발효식품 제조업체인 영농조합법인 금계식품(대표 임장욱)을 찾아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전통 발효식품 육성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식초는 인류가 만든 최초의 조미료이자 1만여 년의 역사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발효식품"이라며, "국산원료를 활용해 오랜시간 전통적인 방법으로 발효·숙성시킨 천연 식초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 발효식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프리미엄 상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를 넘어 해



외 수출 영토 확장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영농조합법인 금계식품은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41호이자 감식초 명인 1호 임장욱 명인이 설립한 최고 품질의 천연 발효식초 제조업체로 2005년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과 2007년 미국 FDA인증 획득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김재훈 기자

이어, 김 사장은 전북 정읍시 소재 윈스탑마트(대표 김현영)와 샘고을시장을 잇따라 찾아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설맞이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설명절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구매시 최대 30%까지 대형마트 및 중소 유통경로 등에서 1만원에서 2만원까지 할인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온라인물 혹은 앱을 통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전북환경청,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부지 현황 방문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원주 금와습지 현장을 방문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 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대체자연을 조성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북지역은 금와습지(원주), 내장산자락(정읍), 월곡 에너지타운(고창) 등 3개소가 선정된 바 있다.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상의협의회, 18일 도민 모두와 함께 역사적 뜻 모아

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는 지난 18일 역사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도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공인들은 성명을 통해 전북은 수도권과 영남권, 그리고 호남에서 조차 차별을 받으며 지역발전이 제도적, 재정적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작년 말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본격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추진이 아닌 우리 전북만이 갖는 정책추진이 가능한 제도로 바뀌었다. 이제 전북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

부가 지니고 있던 각종 규제와 권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져오게 된 것은 지역 경제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 등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짐들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전망했다.

윤방섭 전북상협 회장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노력하신 김관영 도지사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전북지역 상공인 모두는 도민 모두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우리 전북이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